



## JAVA / 웹 개발자

안녕하세요. 믿고 쓰는 개발자 \_ \_ \_입니다 :)  
 여러 프로젝트의 기획자, 운영자, 개발자 등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이해력, 추진력, 협력에 강하며, 자기계발과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늘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래밍으로 좋은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개발자로서의 목표입니다.

## EDUCATION

- 2020.12 - 2021.05 빅데이터 BI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 (3등)  
 - 코리아 IT 아카데미 강남  
 - 웹 프론트/백엔드 개발  
 - 빅데이터 분석
- 2014.03 - 2021.0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 (3.7)  
 -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전공  
 - 경영학과 부전공

## CAREER

- 2020.06 - 2020.12 개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스마트 스토어, 쿠팡
- 2018.05 - 2019.08 (주) 이너테인먼트  
 - 앱 서비스 운영 매니저  
 - 오프라인 팬미팅 기획/ 진행

## EXPERIENCE

- 2017.08 - 2017.12 프랑스 파리 교환학생  
 - 경영학 7과목 이수, 장학금 500만원
- 2017.01 - 2017.05 융합인재 사관학교 7기  
 - '장소공유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판매 수익활동 등
- 2015.12 - 2016.05 미국 하와이 교환학생  
 - 어학 3과목 이수
- 2015.04 - 2015.11 차세대 리더 멘토링  
 - 창업/진로 컨설팅 등
- 2015.03 - 2015.07 LG 글로벌 챌린저 해외탐방프로젝트  
 - '한국형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 기획
- 2014.03 - 2015.02 교내 CAD/CAM학회, 댄스동아리
- 2011.08 - 2012.07 와부고 학생부회장  
 - 축제, 체육대회, 각종 행사 기획  
 - 교내 개선 방안 논의

## CERTIFICATION

- 2021.06.02 정보처리기사 취득  
 2020.11.29 토익 820

## PROGRAMING PROJECT

- 2021.04 - 2021.05 네이버쇼핑 데이터분석 (약 1개월)  
 2021.02 - 2021.04 마켓컬리 클론 코딩 (약 2개월)  
 2020.03 - 2020.12 열화상 이미지 프로세싱 (약 10개월)  
 2017.03 - 2017.07 자동차 축구게임 (약 4개월)

## HARD SKILLS

Backend



Frontend



Data  
Analysis  
& Else



## SOFT SKILLS



## CONTACT

TEL :  
 E-mail :

## Ms. Sung, 민쓰성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늘 적극적이며, '적당히' 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을 끝까지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였고 이에 신뢰를 많이 얻어서 '믿고 쓰는 성혜장'이라는 의미로, 이전 회사 대표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민쓰성'입니다.

이전 회사는 신예스타들을 홍보하고 오프라인 팬미팅을 제공하는 신생 스타트업이어서,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 오프라인 팬미팅의 경우 매달 진행하는 주요 서비스임에도 담당자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제 원래 담당업무는 아니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섭외, 기획, 사회, 홍보 등을 진행하면서, 팬미팅의 체계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런칭하기 직전에 입사하여, 런칭 후 사용상 기획, 개발 상의 여러 큰 이슈가 매일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획팀, 개발팀과 사용자 사이에서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없이 잘 해결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해내는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대표님께서 '민쓰성'이라 부르셨고, 제 의견을 늘 존중해 주시고 회사에서 중요한 임무를 많이 맡겨 주셨습니다.

저의 이러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 모든 시스템의 완성은, 개발

기획, 운영 직무에서 개발 직무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모든 일의 체계화, '시스템화'는 개발단에서 완성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운영자로 일할 때, DB설계가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기획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랭킹과 포인트의 관계가 꼬여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메일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뷰징 유저가 많이 생기는 등 개발상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를 운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편집하고, MySQL의 DB를 제가 직접 수정해야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 개발자라는 직무가 단순히 기획자,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예상하고 확장가능성을 가진 설계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DB와 java언어의 관계 등 언어들을 조금 접하게 되었고, 논리에 맞게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시스템화를 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언어를 더 배워보고 싶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공으로 C, Arduino 등의 기초 코딩을 배웠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Java, Python 등의 새로운 언어들은 조금 더 빠르게 배웠고, 이제는 구글링, 유튜브 검색 등을 통해서 필요한 언어 및 기술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팀프로젝트로 '마켓컬리 클론코딩 PC버전' 과 '네이버쇼핑 데이터분석 모바일 버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직접 웹 개발을 해보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재밌었고 적성에 잘 맞는다 확신이 들어서 개발직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기술과 경영의 접점은, 사용자

저는 가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는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강의를 하시는 공학인 아버지와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는 경영인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기술적 지식이 어머니의 경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과 경영, 이 두가지를 융합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먼저는 관심 분야인 빅데이터의 뉴스, 사이트 등 대한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Git Hub 홈페이지 html 클론코딩과 마켓컬리 홈페이지 서버를 포함한 클론코딩으로 제작하였으며, 현재 목표는 또 꽃집의 메뉴판과 고객의 주문서를 받아 저장하는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 어머니 가게에 적용해보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해보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하는 서비스를 기술로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뿌듯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필요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영의 접점이 '사용자' 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용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개발자로서의 목표입니다.

저는 기존에 운영자로서 사용자와 소통하고 그 니즈를 늘 살펴왔던 경험이 있기에,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개발을 하면서도 더욱 사용자입장에서 고민하고 꾸준히 개선해가는 소통하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 ENTJ- 조직적, 계획적, 체계적

저는 ENTJ 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하루, 1주, 한달, 일년 단위로 쪼개어 목표를 세우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분화하여, 가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이 물리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세워 잘 소화해 내는 편입니다.

실제로 마켓컬리 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표 1주일 남기고 서버개발의 전반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팀원들에게 용원과 격려를 하며, 우선순위를 매기고, 각 팀원들의 잘하는 분야를 좀더 집중적으로 재분배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했던 관리자페이지를 후순위로 미루고, 메인 홈페이지 jsp작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카테고리 작업, 상품등록, 결제 페이지 작업 등 큰 작업부터 매일 2-3개씩 완성해갔습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학원에 나가서 질문하고, 2시간씩 자면서 일주일을 홈페이지 작업에만 몰두하였고 기적처럼 일주일만에 기존 마켓컬리 홈페이지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완성되었고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단점으로는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무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실현가능성과 더 효율적인 계획을 고민하고, 실행하면서도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여 프로젝트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00% 되는 아이템보다, 100% 되게 하는 사람

저는 '긍정'과 '리더십'으로 다른 팀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일들을 늘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어떠한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각자의 장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분배 및 동기부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며 완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영화상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젝트 때, 외국인 2명과 한 팀이 되었는데, 한국말도 잘 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어려워하는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좀더 쪼개어 외형설계, 회로설계, 자료조사, 테스트,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등의 여러 파트로 세분화하고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자 "이건 안될 것 같다." 포기하듯 말하는 팀원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인터넷과 책들을 찾아 공부해가며 교수님께도 조언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1년의 졸업작품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여 주저 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고, 옆사람도 함께 일으켜 주어서 끝까지 함께 일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00% 되는 아이템 보다는도 중요한, 100% 되게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팀을 끝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